

# ‘이 뭐꼬’ 자기 안에 깃든 부처 자리 찾아라

##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 ①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복(福)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인연 작복이라 했던가. 삶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좋은 인연을 짓는 복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불연(佛緣)에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공동체’ 도반들과의 만남도 그렇다. 지난 10월 18일 창립법회에 축하 인사차 갔다가 보기 드문 수행의 열기에 끌려서 입회하게 되었고, 108 선지식 구도순례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격월(隔月)에 한 번씩 국내외의 선지식을 찾아 1박 2일 정진, 국내외의 출·재가 선지식뿐만 아니라 이웃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거장까지 만날 예정이라는 정법 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장장 18년이나 걸리는 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동안 ‘남의 다리 굽느라 세월 보냈다’는 회한이 컸기에 만사 제쳐놓고 동참했다.

특히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찾아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석 달 전 불교TV ‘뜯 앞의 잣나무’ MC로 스님과 대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남진제 중대원 복숭아’이라 하는 까닭을 알았다. 무엇보다 시민선원을 개설해서 출가와 재가가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등하게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점에 감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연이 닿았으니 이래저래 일체유심조다.

### 참선, 본래 부처임을 아는 최상승법

11월 17일 첫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법회에 참석한 도반들을 보는 순간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20대에 60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같은 빛깔이었다. 밤 10시, 학림사 오등선원 철야정진 참선 법회가 시작되었다. 김창철선원이 다른 때에 비하면 동침인원이 적다고 한다. 15분 포행으로 몸을 풀고 삼귀예 후 대원 스님이 직접 소참법문을 내렸다.

참선은 화두 참구를 통해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바로 알려면 중생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금강경》 ‘사구계’에 중생계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착 대사가 이르기를, “지혜가 없는 어둠을 가운데 데 빛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가진 식(識)을 별빛에 비유하

고 반딧불에 비유했습니다. 해가 뜨면 별빛도 없어져버리고 반딧불도 등불도 다 없어 집니다.

유위법은 전도(顛倒)된 견해입니다. 평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바로 보고 바로 알면 집착할 게 없습니다. 이 우주만물이, 하늘도 비치고 구름도 비치듯이 식에 비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눈병 든 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중생전에 가로막혀서 영동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육근 육식의 향복을 받아내고 생사에 자신이 있게 됩니다. 참선하다 말고 아마타를 염불 하는 분들을 많이

### 나이·직업 다른 도반과 철야정진

“부처 알려면 중생상 바로보라”는

스님의 소참법문 감동으로 다가와

우연히 가진 차담, 질문이 쏟아졌고

선지식은 폭포수처럼 답을 내렸다

“출산할 때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격월로 선지식 찾아 정진 계획

봤는데, 참선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를 심어야 왕대가 되듯이 참선이라는 상상근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무상(無常)을 바로 보고 화두로 밀어붙여서 지극하게 일념삼매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상을 느껴야 분심(忿心)이 나오고 치열한 정진력이 나옵니다. 다급하면 일념이 됩니다.

제대로 받심도 안 되고 무상도 못 느낀 상태에서 화두를 들고 있으니 명한 상태로 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착 대사가 이르시되, “과거에 행한 것이 생각 속에 다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상상근기를 심어야 실령 이생에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공부를 마칠 수 있고 불국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성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입니다. 모조로 오늘 ‘이 뭐꼬’ 화두를 밀어 붙여서 자기 자신 안에 본래 깃들어 있는 불성을 보기 바랍니다.



학산 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2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으며, 1965년 수선인거 이래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전국 유일의 특별유망정진 참선도량 학림사 오등선원 창건, 조실로서 전국의 수많은 출가 재가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고 있다.



정법빠리사 회원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회원들과 대원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학림사 텃밭에서 울력을 진행했다.

푸른 허공처럼 순수한 불성 만나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대중의 참선 수행 열기가 고조되는 듯했다. 나 역시 저절로 허리가 곧추세워졌다. 길다란 장군죽비 소리에 맞춰 대중 모두 빙 둘러 앉아 각기 마음의 소를 찾기 시작했다. 적막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고요해서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신기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전날 밤 10시부터 45분 참선, 15분 포행, 새벽 3시까지 5시간 수행했는데, 비록 본 것도 없고 밝아진 것도 없지만 반가부좌로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 마치 명현 현상처럼 내 몸의 문제부위를 느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다.

아침 공양 후 철야정진 수행 대중들과 대원 스님과의 차담이 있었다. 수행의 궁극은 지혜와 자비인데, 스님의 소참법문을 들으면서 스님이 직접 차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지혜와 자비를 자유자재로 굴리시는 선지식을 만난 환희심,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차담

시간, 자유롭게 질문해 보라는 스님의 말씀에 몇몇 분이 질문을 했다. 공부에 필요한 질문을 해 준 도반들 덕분에 더욱 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도반들을 그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대원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했다.

질문: 스님, 방석이 뜨고 머리가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대원 스님: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익힌 중생심을 자연스럽게 쓰고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면 중생심이 문제를 일으켜서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 별 느낌이 없는데, 빨리 걸어가면 숨이 차고, 달리면 더 숨이 찹니다. 평소 중생심으로 살다가 일념으로 화두를 챙기면 여러 가지 경계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힘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느낌이 오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되고 중요하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경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놓고 오

직 화두만 끈질기게 일념으로 참구해서 푸른 허공처럼 순수한 불성을 만나야 합니다. 중생심은 질기다 질긴 마음의 습관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로켓을 발사하는 데 힘이 들지만,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무중력 상태라 공기 저항이 없어 자유롭게 잘 작동합니다. 중력처럼 중생심의 기운이 아무리 크다 해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면 공부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 아기를 낳을 때처럼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나와야 엄마가 삽니다. 공부도 사력을 다해 아기를 낳듯 그렇게 힘을 들여야 합니다.

밥을 할 때, 연탄불에 밥 앉혀 놓은 상태에서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도 밥을 태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의 힘을 얻어야 환한 불성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스님, 오등선원에 와서 도반들과 할 때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는 마음먹고 앉아도 자꾸 망상만 들고 공부 가 잘 안 됩니다.

대원 스님: 생활의 터전인 집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생활양상, 분위기, 기운 자체가 다르잖아요. 좋은 도량과 도반, 도인을 3도라 해서 공부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부터 좌청룡에서 물이 흐르면 인물이 난다고 했어요. 풍수가들마다 오등선원이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처럼 도인이 나오는 명당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굳이 그런 말을 빌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 보면 압니다.

### 함께 한 도반이 진정한 선지식

구도 순례를 마친 도반들은 모두들 환희심에 젖었다. 정은용 대표 도반은 “평소 수행을 하면서도 길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뵙고 그간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첫 회부터 뜻을 이룬 듯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제 정법빠리사 운영책임도반은 “금생에 만나기 힘든 국내외 선지식들 108분을 찾아뵙고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인연공덕의 씨앗이 되자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됐다”면서 “첫 구도순례법회를 기획하면서 도반과 함께 일주일 용맹정진을 했는데, 법 앞에 평등함을 몸소 보여주신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의 소를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수행이 너무 좋았다 는 소감도 있었다. 조명숙 씨는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풀려라도 수행한 것 자체가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석해서 꼭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미경 씨는 “수행을 혼자서 하다 보니 잘 안됐다. 그래서 도반과 수행 도량,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 정법빠리사를 만났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선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배우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박 2일 수행을 함께한 정법빠리사 도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반들이 나의 진정한 선지식으로 다가왔다. 이 귀하다 귀한 인연을 잘 싹틔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108분의 국내외의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우리 안의 불성을 볼 수 있기를, 날마다 새로운 날,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이 되기를 합장 발원해 본다.

정리=사기순 민족사 주간

###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 조계종 전국수좌회 의정 의정 스님

일시: 2016년 1월 16~17일  
장소: 양평 성운사  
문의: 운영책임도반 이남재(010-5217-28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붓다쇼핑

**@800원**  
(100개이상)

삼베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한지 삼재풀이

**신년맞이기도부**  
판매가 800원(100개이상)  
판매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판매가 800원(100개이상)  
판매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

**한지 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흰색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흰색 - 참 좋은 인연입니다.  
C: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D: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10x15cm / 9x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크기: 9x2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개당)  
크기: 60x7cm  
포장: 개별 봉투포장

**금지세뱃봉투(100매)**  
판매가 A 12,000원 (8x16.5cm)  
B 12,000원 (8x16.5cm)  
C 12,000원 (8x16.5cm)  
D 12,000원 (8x16.5cm)